

하나님께 꾸어드림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어느 날 가난한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2실링 6펜스 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찾아간 집에는 갓난아이를 안은 어머니가 몸져 누워 있었는데,
그들의 상태는 하룻밤을 넘기기가 매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내가 가진 돈이 3실링 6펜스라면 이 가난한 여인에게
1실링을 기쁘게 줄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엄마에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에는 자비롭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라고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 위선자, 이 사람들에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운운하면서 주머니에 돈을 움켜쥐고 있다니!'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양심에 가책을 받은 그는 아기 엄마에게 자기가 갖고 있던
돈 전부를 꺼내 주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게 된 그였지만 단칸방으로
걸어오는 발걸음은 그의 빈 주머니만큼이나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빌려 드린 것이 오래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내일 점심부터 굶어야 합니다."
다음날 아침, 그에게는 10실링짜리 금화 하나가 우편으로
우송되어 왔습니다.

출처 -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 기독교신문사 (2002/04/19)

♫ 여러분의 가장 깊은 한숨을 아시는 그 분을 만나십시오. 「더 깊은 묵상」 제공